

世界發明史에 記錄된

名發明品 名發明人

그것과 그들은 누구인가

〈前號에서 계속〉

증기기관 직기

발명은 카아터라이트

증기기관에 의한 직기의 발명은 영국의 옥스퍼드대학출신의 교사인 카아터라이트였다. 그는 1785년에 담직기를 발명했다.

그로부터 4년 후인 1789년에는 증기기관직기를 발명하여 이내 특허를 얻었다.

그러나 그때만 해도 수직이 전부였고 그 수직 종사원의 세력도 무시할 수 없는 처지여서 카아터라이트가 발명한 증기기관직기가 평판이 좋을뿐 아니라 그 공장이 확장되자 수직 종사원들이 카아터라이트의 공장을 불살라 버렸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카아터라이트는 그 방면에 특허권을 얻어 놓았기 때문에 공장은 불탔어도 바로 복구되어 대성하기에 이르렀다.

자동조면기는
화이트니가 발명

미국 사상 위대한 발명가의 한 사람으로 일리 화이트니(Eli Whitney)가 있는데 그가 바로 조면기를 1793년에 발명했다.

원래 그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남북전쟁 당시 철못공장을 경영하여 돈을 벌면서 1792년 예일대학을 졸업하였고 그 다음 해에 자동조면기를 발명한 것이다.

그 조면기의 성능은 겨우 2마력의 원동기였으나 1,000명이 해낼 일을 한사람과 기계로서 충분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가 그 기계를 특허출원하기 전에 방해자에 의하여 공장이 불타버렸다가 그 후 다시 재건하였다.

재봉틀은 하우의 특허

재봉틀은 1845년 미국의 에

라이어스·하우가 발명하였다. 발명의 계기는 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가난한 집에 태어난 하우는 시계수리공이었으나 항상 옷을 꿰매는 기계를 공상하다가 우연히 꿈에서 힌트를 얻게 되었다. 즉 어느날 꿈에서 토인에게 잡혀서 추장앞에 끌려 나갔으며 그 추장으로부터 24시간 내에 재봉틀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처형하겠다는 엄포를 들었다. 하우는 마침내 토인에게 이끌려 형장으로 나가다가 토인들이 갖고 있는 창끝에서 사람의 눈과 비슷한 구멍이 뚫려 있음을 깨달았다. 이때 그는 이것이다 하는 순간 잠을 깨었고 이를 바탕으로 재봉틀을 만들었다.

그러나 그가 만든 재봉틀은 한대도 팔리지 않아 영국으로 가서 팔아 보려 했으나 역시 실패하고 말았다. 실망한 나머지 다시 뉴욕으로 돌아왔을 때는 미국내에 싱거머신이 인기를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하

- …… 현대는 發明時代이다. 우리의 日常生活과 社會生活에서 發明의 惠澤을 받지 않은……○
- ……것은 없다. ……………○
- …… 한마디로 發明의 힘을 빌리지 않고 움직이는 것은 없다. ……………○
- …… 이 때문에 人間은 보다 새롭고, 다양하고, 눈부신 發明을 꾸준히 하고 있는 것……○
- ……이다. ……………○
- …… 오늘날 世界의 모든 國家들이 훌륭한 發明人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切實하게 쫓……○
- ……망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
- …… 한편 우리는 수많은 發明중에서 人類의 幸福과 社會 및 世界의 發展에 크게 貢……○
- ……獻한 發明을 「名發明品」, 그 發明을 한 사람을 「名發明人」이라 한다. ……………○
- …… 그러나 名發明品이 무엇이고, 그 發明을 한 名發明人을 알고있는 사람은 흔히……○
- ……않다. 이에 本誌는 世界 發明史에 記錄된 名發明品은 무엇이며, 그 名發明人은 누……○
- ……구인가를 追跡해 보았다. ……………〈編輯者 記〉……○

우는 자기의 특허권을 주장하여 오랜 시일의 법정투쟁 끝에 권리를 획득하였으나 이미 늙어 있었다.

예취기는 매커믹이 발명

벼나 보리의 예취기를 발명한 사람은 미국의 매커믹이다. 그는 버지니아주의 대농의 아들로 태어난 탓도 있으나 그의 노력과 또한 시운까지 가세하여 끝내는 세계굴지의 대농기계회사로 발전하였다.

매커믹은 풀베는 기계의 발명을 꿈꾸고 매일같이 자기부친의 농장에 나가서 머슴인 혹은 앤더슨의 보리 베는 솜씨를 보다가 그의 손이 움직이는데로 작동하는 풀베는 기계를 발명하여 말에 끌려 기계를 움직인바 한사람의 6배나 빠른 풀이 베어졌다.

그는 즉시 특허를 출원하였다.

그때 핫세이라는 사람도 비슷한 기계를 발명하여 판매하

기 시작함으로써 두사람은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나 두 기계는 잘 팔렸다.

그때 매커믹은 서부에, 핫세이는 동부에 각각 농기계공장을 세우고 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뒤 서부는 농업이 발달하여 매커믹의 농기계사업은 번창하였으나, 동부는 구태의연한 까닭에 핫세이는 특허권까지 타인에게 양보하고 말았다. 이 두사람의 사업결과는 노력과 선견지명과 운이라는 삼위일체의 상징이기도 하다.

화분에서 철근 콘크리트 착상

철근 콘크리트는 꽃심는 분에서 착상하여 발명특허까지

얻게 되었다.

지금으로부터 120여년전 프랑스에 모니에라는 꽃장수가 화분이 잘 깨지는 통에 시멘트로 화분을 만들어 보았으나 역시 깨지지는 매일반이므로 철사망을 심으로 하여 만들어 보았다.

결과가 좋아 이 제법에 대해 1867년에 특허를 얻었다. 그때 모니에는 가옥의 단계이나 교각, 철도의 침목에 쓰일 것을 예견하고 철근콘크리트의 특허까지 얻었다.

그후 독일의 와이스라는 건축기사가 이 특허가 토목건축용 재료로 쓰여질 것을 생각하고 모니에로부터 그 특허를 사들여 여러 형태의 철근콘크리트건물을 발표하여 그역시 재미를 특특히 보게 되었다. <㉞>

發 刊 案 內	<h2 style="margin: 0;">技術導入 라이선싱契約</h2> <p style="margin: 0;">규격 : 국판 194면 저자 : 조철현(변리사) 가격 : 4,000원</p>
------------------	--